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

제34회 아산상 ③ | 사회봉사상 착한목자수녀회



미혼모 시설의 아기를 돌보는 최영란 프란치스카 수녀, 김영선 폴린 수녀(왼쪽부터).

1835년 프랑스 앙제에서 시작된 착한목자수녀회는 전 세계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으로 세계 70개국으로 진출했다. 우리나라에는 1966년 미국인 수녀 2명이 전북 군산시에 가난한 소녀들을 위해 직업학교와 기숙사를 설립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는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다.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노동자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젊은 근로 여성들이 증가하자 착한목자수녀회는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서울시 성수동에 수녀원과 ‘마리아자매원’을 설립해 근로 여성과 사회적 편견으로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1979년에는 강원도 춘천시에 ‘마리아의집’을 추가로 개소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곤경에 처한 미혼모에게 상담과 교육, 무료 분만 등을 지원하며 안전한 출산을 도왔다.

또 출산 후 지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수녀회는 미혼모들이 자녀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다. 2003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했으며, 강원도 내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미혼모의 출산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외된 여성들을 향한 외길

착한목자수녀회는 가출 여성청소년,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폭력 피해 결혼 이주여성 등을 향해 지속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오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가출청소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수녀회는 범죄에 노출된 이들을 위해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열었다. 하지만 청소년 시설의 경우 만 19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보호시설을 떠나는

소녀들도 많았다. 이들은 또 다시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노출되어서 시설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착한목자수녀회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자립시설을 만들고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시설을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고, 2019년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을 개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돌보기 위한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전화 한 통으로 구한 생명

착한목자수녀회는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여성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36’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착한목자수녀회는 춘천과 제주 두 곳의 상담 전화를 담당하고 있다.

비록 전화 한 통이지만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들도 많았다. 수녀들은 오래 전 ‘혼자서 아기를 낳고 있는데 도와달라’며 한밤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달려가 보니 어린 소녀가 여관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있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마리아의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했다. 수녀들은 여관방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낳았을 소녀를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한 통의 전화라도 없었다면 소녀와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일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착한목자수녀회는 이주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2001년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를 개소하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동남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까지 입소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외국인 및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폭력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을 위해 ‘강원이주여성상담소’를 열고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인 ‘틴스타’를 한국에 도입했으며,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낙태 후 화해 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착한목자수녀회는 2018년부터 열악한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방문 활동인 ‘그린도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린도어’라는 이름은 수녀회가 처음 시작된 프랑스 앙제지

역본부의 초록색 문에서 따온 것이다. 수녀회는 주 1~2회 이들을 방문하여 일상적인 상담과 함께 병원에 동행하거나 일상에서 겪는 고민들을 나누며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수녀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여성들이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녀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새로 입회하는 수녀들의 숫자는 줄고 있어 수녀들의 걱정도 함께 커져만 가고 있다. “평신도들도 착한 목자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우리 수녀들이 나이가 들고 착한목자수녀회가 사라진다고 해도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이 사명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희운 대표 수녀는 성경의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강조한다.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한 마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녀들은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어들어야지요.”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착한목자수녀회의 설립 정신이 수녀회가 반 백 년간 걸어온 목직한 발걸음을 따라 고스란히 전해진다.  글 정재학 작가



춘천에 있는 ‘마리아의집’ 앞에 모인 착한목자수녀회 수녀들.